

## 韓國圖書館教育的反省

鄭 秘 謨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教授)

## 〈目次〉

## 序論

圖書館學의 基本的 概念에 관한 問題  
 圖書館奉仕의 體系와 圖書館學의 體系  
 圖書館學의 體系와 韓國의 圖書館教育  
 韓國圖書館奉仕의 現況과 國際思潮  
 結論 및 提言

## 序論

우리 나라에 現代의인 圖書館學이 시작된것은 1946年 國立朝鮮圖書館學校의 開校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本格的인 圖書館學의 出發은 역시 1957年 延世大學校의 圖書館學科의 創設과 同校의 韓國圖書館學校의 開校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本格的인 圖書館教育의 歷史는 今年이 10周年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후 1959年에 梨花女大에 圖書館學科가 創設되었고 1963年에는 中央大學校, 1964年에는 成均館大學校에 各各 設置되었고, 또한 1958년부터는 延世大學校에 8週間過程의 司書教師講習이 있었고, 1965년부터는 成均館大學校에 司書教育院, 그리고 數年間に 걸쳐서 圖書館協會 主管으로 이루어진 司書講習 및 司書教師講習 등 10年 동안에 우리 나라의 圖書館界는 끊임 없는 努力을 했고 그에 따라 많은 發展을 해 왔습니다. 더욱이 近年에 와서는 圖書館協會를 中心으로 圖書館人의 힘을 모아 이루어진 韓國十進分類法, 韓國目錄規則, 圖書館實務便覽, 選定圖書目錄, 學術雜誌索引 이를 繼承한 國會圖書館의 國內刊行物記事索引 등이 出版되었고, 著書로는 張一世先生의 學校圖書館運用指針, 李丙洙先生의 圖書分類導論, 金斗弘先生의 學校圖書館運用論 등 많은 收穫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學問이라든가 教育이라는 立場에서 볼 때 表面上으로 나타나는 數量的인 結果가 學問의 發展이며 教育의 發展이 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나라 圖書館教育의 初創期로서 거의 Zero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不充分한 點이 많았다고 생각 됩니다.

各圖書館學科나 圖書館教育過程에 있어서의 教科內容은 거의 外國의 것 特히 美國이나 日本의 것을 거의 그대로 傳達하거나 模倣한 時期였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圖書館學界에서는 創意的인 研究의 結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일에 있어서나 또는 어느 學問에 있어서나 後進의地域에 있어서는 이러한 模倣時期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時期는 創意力이 弱한 것은 不可避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論題에 符合이 될는지 저 自信도 의 문입니다마는 이제까지 圖書館學, 圖書館教育, 圖書館奉仕에 관하여 제가 생각한 몇가지 點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圖書館學의 基本概念에 관한 問題

이제까지 제가 가장 不滿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圖書館學에 대한 基本的인 概念에 관한 問題입니다.

數個月前에 市內 某茶房에서 現職에 계신 두분의 圖書館職員과 자리를 같이하여 圖書館學에 관한 討論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분다 圖書館教育一年過程을 履修하고 二, 三年씩 圖書館에서 勤務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가지 閒談을 하고있는 途中에 圖書館에 관한 말 이 나오자 한사람이 저에게 突然히 하는 말이 “圖書館學이 學問으로써 成立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갑자기 왜 그런 質問을 하십니까? 圖書館學을 공부하고 圖書館에서 勤務하시는 분이……”

“그런게 아니라 數日前에 우리들끼리 圖書館學이 學問이냐 아니냐 하는 問題를 가지고 論難이 있었는데 아직 解決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들은 圖書館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圖書館學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延大, 中大, 梨大, 成大 四個大學의 圖書館學科學部過程에는 圖書館學概論이나 通論, 原論 등의 學科目名으로 圖書館學에 관한 概念이나 入門이 커리큘럼에 配定되어 있는데 延世大學校의 圖書館學堂이나 成均館大學校의 司書敎育院이나 圖書館協會에서 主管하는 司書講習 등의 過程에는 이러한 學科目이 配定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圖書館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느냐? 圖書館學이 어떠한 學問이며 어떠한 體系로 成立될 수 있는나? 무엇때문에 圖書館學을 하느냐 하는 가장 重要한 基本的인 概念은 度外視하고 우리 나라의 圖書館界의 現實情 그대로 圖書館業務에서 現實的으로 必要로 하는 管理運營, 資料의 整理組織 爲主의 敎育을 받은 것입니다.

이 問題는 圖書館學을 적절히 基礎부터 공부한 사람도 圖書館學에 관한 基本的인 概念이 明確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問題는 비단 우리나라 圖書館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先進外國 圖書館界의 圖書館學에 관한 概念까지도 不明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930年을 前後하여 美國을 中心으로해서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知識이나 技術이나? 學問이라면 그 哲學的인 思考態度 또는 目的的인 意識이 무엇이나? 또는 어떠한 原理가 있는 것이나? 그 體系는 어떤 것이나? 하고 論難이 많았던 以來 아직까지도 이러한 問題를 뚜렷이 밝혀주는 記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現在까지의 圖書館學入門書나 圖書館用語辭典이나 핸드북에서도 圖書館學의 意義, 目的, 體系 등을 뚜렷이 解明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다시 反問을 했습니다. “學問이란 무엇입니까?”

“글쎄요. 하나의 目的이나 原理가 一貫하는 體系의인 知識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兄은 學部時節에 무엇을 專攻했습니까?”

“國文學입니다”

“李兄은?”

“敎育學입니다”

“그러면 文學은 어떠한 學問입니까? 어떠한 意義, 어떠한 目的 또는 어떠한 原理와 體系로써 이루어 집니까?”

“敎育學은 어떠한 學問입니까? 어떠한 意義와 目的, 어떠한 原理, 어떠한 體系로서 成立하는 것입니까?”

갑작스런 反擊이라 그분들의 對答은 模糊하고 당황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갑작스런 質問이 아니라 할

지라도 自己가 專攻한 分野에 對해서 自己自身이 比較的 徹底한 學問觀을 가지지 않는 限 明確하고 客觀的으로 妥當한 簡單한 解明을 期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學問이나 그 體系가 언제나 一致하는 뚜렷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學問의 體系는 그의 發展이나 變遷에 따라서 또는 學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지나름으로서의 圖書館學에 관한 見解를 大略 說明을 하고 共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契機로 하여 圖書館學에 관한 저의 見解를 다시 整理해서 “圖協月報” 지난 4月號에 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편의상 다음에 그 要點을 簡單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基本概念이란 圖書館學에 대한 基本的인 哲學的인 思考態度를 意味합니다. 人間社會에 있어서 公的인 問題의 解決, 特別히 學問에 있어서는 客觀的으로 妥當한 思考態度를 明確히 하는 것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學問에는 哲學이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 哲學은 그 科學의 意義와 目的 또는 原理와 體系를 究明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學도 他科學에서의 마찬가지로 그 哲學的인 思考態度를 가지고 圖書館 및 圖書館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現象을 社會와 人類文化의 發展全般에 結付시켜서 本質的으로 考察하고 그 眞相과 意義를 究明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現在까지 圖書館學에 대한 哲學的인 思考態度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體系적으로 整理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圖書館學에 대한 哲學的인 思考態度(理念)는 積極的인 文化暢達의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原理와 體系를 展開해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要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過去の 文化와 敎育은 一部 特殊階級사이에서만 이루어졌는데 現代의 民主社會에 이르러서는 거의 全人類가 平等하게 文化를 享有할 自由와 權利를 가졌고 敎育을 받을 權利와 義務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全人類가 平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와 義務를 가졌고, 文化를 享有할 自由와 權利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自由를 누리고 權利와 義務를 履行할 수 있는 條件造成이 問題입니다.

敎育面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이 義務的으로 最少限의 基礎的인 敎育을 받을 수 있는 施設과 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은 個人的인 面에서 보면 人生의 一定한 期間內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一定한 期間 동안에 그보다 高次的인 形式敎育을 더 받은 者라 할지라도 敎育이 그것으로서 完全히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全然 無意味한 것입니다.

形式教育의 다음에는 各者의 自由教育이 連續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變遷의 速度가 빠른 現代社會에서 生活하는 民主市民은 各者의 生活가운데 自由로히 時代에 適應하는 知識과 教養을 넓히어 自主의인 人間으로 育成하게 하므로서 비로소 眞情한 意味에서 民主市民으로서 文化를 享有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現代의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自由教育과 文化의 享有를 위해서 가장 적은 經費로 가장 많은 市民에게 效果의으로 便利하게 利用할수 있는 方法으로서 公共圖書館이라고 하는것이 社會制度로서 登場하게 된것이다. 歷史의으로 보아 公共圖書館이 公的인 社會制度로서 出現한 것은 19世紀 末期부터이며 現代에는 各地域社會의 末端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을 設置하고 모든 市民이 自由로히 利用할 수 있도록 社會的으로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代社會는 機能社會이며 組織社會라고도 불리워 진다. 社會의 모든 構成은 機能別로 組織되어 있으며 그 總體的인 機能은 結局 人類文化의 發展과 福祉 社會의 建設에 貢獻하는 것이다.

文化의 發展에 寄與하고있는 모든 教育機關, 文化機關, 政府機關에 各各 圖書館을 設置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各機關의 各分野에서 必要로하는 圖書및 文獻을 選擇蒐集하고 그것을 利用에 便利하도록 整理組織하고 또한 이러한 文獻資料를 利用者들에게 案内하고 혹은 指導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各分野의 研究者와 一般利用者로 하여금 時間과 努力을 節約하여 가장 效果의으로 그들의 知識 思想 經驗 技術 및 아이디어를 發展시키게 하는 同時에 그 發展의 結果를 다시 文獻으로 傳承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現代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모든 文化的 機關과 各地域社會의 市民들이 圖書館을 通하여 그들이 必要로하는 圖書와 文獻을 가장 效果의으로 自由로히 利用할 수 있도록 最大限의 可能한 條件을 造成해 줌으로서 文化의 發展을 效果의으로 促進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積極的으로 文化의 暢達을 圖謀하는 것이다.

結論의으로 말하면 文化暢達의 原理는 모든 文化가 가장 效果의으로 迅速히 發展할 수 있도록 最善의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 널리 使用되고 있는 “圖書館奉仕”라고 하는 말은 넓은 意味에서 “文化의 暢達을 위한 奉仕”라고 하는 말과 共通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奉仕라고 하는 것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學은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 造成의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한 圖書館奉仕에 關하여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圖書館奉仕의 體系와 圖書館學의 體系

### A. 圖書館奉仕의 體系

一般的으로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圖書館自體에서 이루어지는 奉仕體系만을 意味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圖書館의 奉仕活動이 社會的인 面에서 文化의 暢達作用이라고 하는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면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國家의 基本法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現代의 民主社會는 法治社會이며 法治社會에 있어서는 國家의 憲法을 바탕으로 이에 따르는 其他 諸法律에 의하여 組織化되고 機能化되고 있으므로 圖書館만의 獨自的인 文化暢達作用이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憲法에 있어서 圖書館에 가장 基本的인 關聯을 가지는 條項은 第十六條 一項에 있는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教育은 學校教育에 限定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世界의 成文憲法中에 社會權으로써 圖書館을 明確히 밝힌것은 極히 적으나 中華民國 憲法은 그 第94條에 “... 國家는 各種의 學校및 其他의 文化教育機關을 設立하고 점차 그것을 擴大하고 이것에 의하여 公民이 이 權利를 享受하는 것을 保證한다”고 어느정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을 바탕으로하여 圖書館의 奉仕活動과 根本的으로 關係를 가지는 法律은 圖書館法이다.

圖書館法은 本來 그 國家의 圖書館事業의 內容을 規制하고 앞으로의 圖書館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의 文化暢達을 위해서 政府가 모든 市民, 모든 機關에 대해서 어떻게 奉仕할 것이라는 計劃과 方法을 提示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은 第1條에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和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提示하고 이에 따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면 此際에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에 대하여 몇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은 그 第1條의 目的 즉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和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確實한 政策의 提示나 國家的인 意志가 表示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具體的으로 말하면 同法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의당 해야할 公共圖書館의 設置條項(第7條, 第18條)이나 經費補助條項(第19條, 第21條) 등은 (해야한다)고 하는 義務的條項으로 表示되지 않고 (할수있다)고 하는 任

意的條項으로 表示하여 確實한 對策이 없이 無責任한 放任의 態度를 取하고 있습니다. 那가 하면 한편 公立의 公共圖書館이나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對해서는 官에서 간섭을 하겠다는 條項(第9, 10, 11, 12, 20, 22, 23, 28, 29條)만을 列據하여 오히려 公共圖書館의 育成을 妨害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支出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大學校 등의 圖書館設置條項(第25條)만을 義務條項으로 規定함으로써 學校關係의 圖書館만 育成되면 되지 않느냐는 趣旨를 表示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特히 第8條에 「公共圖書館의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條項이며, 이것은 「奉仕」라고 하는 意味를 完全히 말살한 條項입니다.

結局 同法은 그 第1條의 那런듯한 目的이 全然 虛偽이며 虛飾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圖書館法에 特히 以上에서 말한 條項을 時急히 改定하고 健全한 社會教育과 文化의 發展에 努力하겠다는 誠意와 意志를 뚜렷이 밝히는 同時에 이에 따라 實踐해야 할 것입니다.

以上에서 말한 것은 國家 또는 政府로서의 文化政策에 圖書館政策 또는 行政으로서 이것은 政府로서의 國民에 對한 文化奉仕 또는 圖書館奉仕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圖書館自體의 奉仕體系는 그것을 크게 셋으로 區分해서 考察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圖書館員이 圖書館資料를 選擇해서 蒐集하는 機能이며, 둘째는 그 選擇 收集된 資料를 體系의 整理 組織하는 機能이며, 셋째는 整理 組織된 圖書館資料를 利用者에게 效果의 利用하도록 案内指導하는 機能입니다.

이에 對해서는 여러 人들이 너무나 잘 認識하고 계실 것이므로 그 以上 說明을 要하지 않을 것입니다.

## B. 圖書館學의 體系

現在까지 圖書館學은 그 學의 目的이 統一의 目的에 達하지 않았기 때문에 圖書館學의 體系가 問題이었고, 그리하여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技術이나, 知識이나하는 論難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以上에서 말한바와 같이 圖書館學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法을 研究한다고 하는 하나의 目的으로 統合함으로써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範疇內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各 學科目 사이에는 必然的인 紐帶가 形成되며 또한 體系化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學을 形成하고 있는 各 學科目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

法을 研究하는 各各의 分科라는 것이 明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圖書館學은 圖書館奉仕에 對해서 研究하는 科學이므로 그 體系는 圖書館奉仕의 體系에 따라서 說明되는 것이 便利할 것입니다.

그러면 圖書館學은 우선 이제까지 단숨드린 圖書館奉仕의 理念과 圖書館學의 意義, 目的, 體系 등을 研明하는 理論, 다시 말하면 圖書館奉仕 全般에 걸쳐서 客觀的으로 妥當한 思考態度를 研明하는 文化哲學 또는 社會哲學의인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歷史的인 研究, 즉 他科學에서의 主題史와 마찬가지로 圖書 및 圖書館의 歷史의 變遷過程에 있어서의 現在의 位置를 살피고 未來에의 方向을 設定하기 위한 歷史的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內容은 圖書 또는 圖書館 그 自體의 歷史보다도 文化史的인 面에서 圖書文化史와 圖書館文化史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奉仕體系에 關한 研究입니다. 여기에서는 첫째 圖書館奉仕를 効率的으로 實踐하기 위한 最善의 經營管理方法이 研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館種別 經營管理研究도 여기에 包含될 것입니다.

둘째는 資料에 關한 研究, 즉 古來로부터 傳受해온 知的인 文化財와 現代 市民社會에서 産出되는 多種多樣的인 知的文獻과 매스 미디어 가운데에서 市民에게 보다 有用한 知識과 健全한 娛樂의 資料를 提供하기 위해서 各各의 資料를 評價하고 選擇하는데 關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資料의 組織에 關한 研究, 즉 圖書館에 蒐集된 圖書나 情報資料를 利用者에게 가장 迅速하고 便利하게 利用될 수 있도록 또는 能率的으로 奉仕할 수 있도록 資料를 一定한 秩序下에 體系의 整理하기 위한 方法이 研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現在까지 分類法, 目錄法, 書誌, 索引, 抄錄 또는 機械的인 處理法 등으로 區分되어 研究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案内, 指導에 關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圖書館資料는 選擇蒐集되어 一定한 秩序下에 整備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利用者 全般에 걸친 圖書館 任意의 것으로서 그 組織은 역시 複雜하므로 모든 利用者가 그 利用에 能熟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利用者에게 圖書館의 利用方法을 指導하고 資料를 案内하고 提供하는데 關한 研究가 必要한 것입니다. 또한 專門的인 面에 있어서는 보다 有用하고 迅速하게 利用하도록 하기 위한 調查와 研究가 必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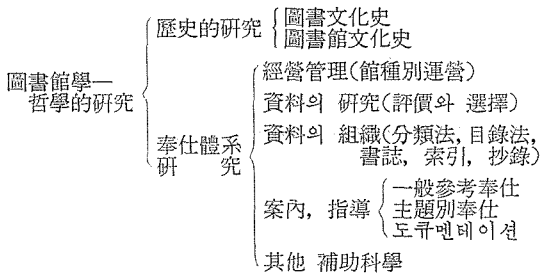
이 分野는 現在까지 一般利用者를 위한 一般參考業務와 專門家와 學者를 위한 主題別書誌 그리고 더욱 專門的이고 迅速한 情報을 要하는 分野에 對한 도큐멘

메이전 등으로 區分되어 研究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分野는 圖書館奉仕에 있어서 尖端의인 가장 重要한 分野로서 가장 專門의인 知識을 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圖書選擇에 있어서와 같이 모든 分野의 資料의 內容을 把握할 뿐만 아니라 各各의 資料가 各各의 어떠한 讀者에게 어떻게 利用되어야 有用할 것인가를 研究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其他 圖書館學의 分野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語學이라든가 打字라든가 機械의 利用에 관한 것이라든가 하는 등은 圖書館學의 補助科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以上에서 말씀드린 圖書館學의 體系를 다음과 같은 圖式으로 表示할 수 있을 것입니다.



### 圖書館學의 體系와 韓國의 圖書館教育

以上에서 말씀드린 바가 圖書館學의 體系라고 認定된다면 圖書館教育에 있어서의 教科의 配定(Curriculum)은 역시 圖書館學의 體系에 따라서 均衡을 이룰수 있도록 配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各 圖書館教育機關은 어느 分野에 더 重點을 두느냐에 따라서 教科配定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四個大學 圖書館學科의 커리큘럼에 관해서는“圖協月報” 1966年 12月號에 梨大 金世翹教授가 考察한 “韓國圖書館學의 反省과 展望”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各學科의 1967年度 커리큘럼은 部分的으로 多少 變更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可及의이면 變更된 커리큘럼을 같이 對照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各 커리큘럼에서 보면 四個學科가 共通의으로 圖書館學의 體系內에서 比較的 均衡의으로 配定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問題는 各 學科科目을 어떠한 態度에서 어떠한 體系와 方法으로 教育을 實施하고 있느냐 하는 問題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擔當教授의 裁量과 學의 態度에 관한 問題로서 이에 대한 feed back(反響)이 나타나지 않는 限 이를 評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一般의으로 文獻을 通해서 느끼는 點은 圖書館學의

歷史的인 研究와 關聯되는 科目, 즉 圖書館史나 圖書에 관한 歷史, 古來의 書誌 등이 大體로 各各 그 自體의 歷史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 變遷에 따른 歷史의 意義가 研明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圖書文化史 또는 圖書館文化史의 으로 다루어지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커리큘럼의 問題는 떠나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點은 圖書館學의 教科書問題입니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教育의 歷史가 10年이 되는 最近까지 學生들을 위한 우리 말로 된 完전한 教科書가 거의 없었다는 點입니다. 現代教育에 있어서 教科書가 없이 教育을 한다는 것은 웃은운 이야기이며 學生들에게 부끄러운 劣點입니다. 이에 대한 時急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學部課程以外的 圖書館教育機關, 즉 延大의 圖書館學堂, 成大의 司書教育院, 圖書館協會가 主管했던 司書 및 司書教師講習에 있어서의 커리큘럼은 大體로 均衡을 이루고 있으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圖書館學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入門科目이 漏落되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韓國의 圖書館奉仕의 現況과 國際的인 思潮

그동안 저는 圖書館界의 人士들로부터 우리 나라의 圖書館教育은 圖書館資料整理技術을 爲主로 하고 있고, 따라서 圖書館業務도 資料整理를 爲主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具體的의으로 檢討해 볼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四個大學 圖書館學科의 커리큘럼에서 보면 大略 專攻科目 80學點中에서 資料整理를 위한 科目과 利用者에 대한 直接의인 奉仕를 위한 科目만을 對比해 보면 延世大學은 資料의 整理를 위한 科目이 12學點, 直接의인 奉仕를 위한 科目이 15學點, 其他 53學點이고, 梨大는 13學點, 11學點, 其他 56學點이고, 中大는 16學點, 15學點 其他 49學點이고, 成大는 17學點, 18學點 其他 45學點으로서 資料整理를 위한 科目과 直接의인 奉仕를 위한 科目의 配定比率이 거의 同率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教育이 圖書館資料整理를 爲主로 하고 있다는 말은 語不成說인 것입니다. 其他의 圖書館教育機關의 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圖書館業務가 資料整理를 爲主로 하고 있다는 말은 是認됩니다마는 이 問題도 그 原因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最近 韓國圖書館界의 人的要素를 概觀하건대 大體로 各圖書館마다 圖書館教育을 받은 分들이 1人以上 配置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各 圖

書館의 運營에 關係서 어느 程度의 影響力을 出 示하는 位置에 在否나 하는 것은 一律的으로 斷定할 數 없으나 圖書館教育을 받지 않은 다른 職員들에 比하여 大體로 그의 影響力은 크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 分들에게 賦課되는 業務는 主로 資料整理業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나 하면 우리 나라의 現在까지의 圖書館利用者들은 大體로 圖書館에서 讀書場所로서의 자리를 빌리거나 아니면 이미 自己마음속에 決定하고 있는 冊을 빌리러 가는 것이 通例로서 自己가 求하는 冊이 該 圖書館에 있으면 多幸이고, 없으면 該 以上 圖書館에 對하여 對策을 要求하지 않고 또한 圖書館員은 率先의이고 誠意 있는 奉仕를 해 줄 意慾이 없으므로 直接의인 奉仕業務의 量은 極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圖書館에서 表面上으로 나타나는 資料整理는 圖書館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은 分類나 目錄이 더욱 不可能하므로 圖書館教育을 받은 사람이 資料整理에 없 매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一般의인 認識은 資料를 整理하는 것이 圖書館의 主要 業務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多幸히도 이제는 우리 나라도 圖書館員들의 이러한 隘路를 거의 克服할 時期가 왔다고 봅니다. 그 理由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지난 달 부터 國會圖書館 에서 印刷카야드를 發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晩時之嘆의 感이 있으나 이제라도 着手한 것은 圖 書館界에 對해서 큰 貢獻이라 아니할 數 없습니다. 이 事業이 全國의 各 圖書館을 對象으로 하여 圓滿히 進 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直接의으로 利用者를 相對로 하는 奉仕가 率先의이고 積極의이고 誠意있게 推進되 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一般參考奉仕나, 圖書館利用 案内나 讀書指導 또는 各主題別書誌 및 參考奉仕, 도 큐멘테이션 등은 技術보다도 廣範하고 專門의인 知識과 誠意와 機知가 發揮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圖書館員은 항상 꾸준한 學究의인 努力이 持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圖書館이 名實共히 文化의 中心이요 學問 의 心臟이요 積極의인 文化暢達機關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ALA Bulletin 1967年 1月號에 依하면 美國에서는 6 月 25日부터 7月 1日까지 San Francisco에서 圖書館奉 仕의 對策을 위한 國際會議을 開催한다고 합니다. 各 會員들에게 發送된 會議開催通告에 依하면 Crise in library manpower-math and reality(圖書館人力에 있 어서의 危機—觀念과 實際)로서 該 趣旨는 論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人力에 있어서 危機에 直面하고 있으니 이에 對한 解決方案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危機는 專門의인 圖書館員의 數的인 問題와 能力의 問題가 크게 取扱될 것으로 보입니다. 數的인 問題는 1965年 美國의 圖書館奉仕局(Library Services Branch) 과 ALA의 協同으로 이루어진 圖書館員의 國內需要調 查結果에 依하면 美國 各種圖書館에 專門의인 圖書館 員이 10萬이나 不足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能力의 問題는 現代社會에서 爆發的으로 急增하고 있는 文獻資料와 其他 非圖書資料, 視聽覺資 料, 機械的인 資料 등 無限한 類型的인 資料에 對한 處 理問題와 그의 効用을 위한 奉仕에 있어서 特히 專門 圖書館에 있어서는 圖書館員의 知識이나 技術만으로서 는 不可能함으로 다른 分野의 專門家와의 協同이 不可 避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該 會議에는 圖書館會員 以外에도 權威있는 教育界人士와 教育學者, 經營學界 의 人士, 通信機關의 權威者 등 이 招請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圖書館의 利用도가 높아지고 圖書館奉 仕가 훌륭하게 進展하여 이러한 즐거운(?) 危機가 하 루 速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와 똑같은 樣相이 教育學界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要略해서 말하면 現代의 教育內容은 爆 發的으로 擴大되고 知識과 情報을 얻는 체널이 開放되 어있기 때문에 過去의 傳統的인 教育方法 즉 教師와 學生, 教材의 三要素에 의해서 는 이루어질 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現代의 教師는 어느면에서는 教育 者가 아니라 學生의 學習을 위한 案内者 또는 補助者 의 機能으로 轉換하게 되었으며, 學生들의 보다 效果 的인 學習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必要한 知的인 資料를 效果的으로 組織化하여 補給(supply)하는 것, 다시 말 하면 學生들의 效果의인 學習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해주는 것이 主要한 機能이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教師의 機能과 圖書館員의 機能이 一 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教育大學 이나 師範大學에서는 어느程度의 圖書館教育이 必要하 고 또 한편 圖書館學科에서도 教育學을 어느程度 履修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現職에 계신 圖書館人들은 이 나라의 科學의 發展과 文化의 發展을 促進하는 指導者라는 自負心과 信念과 希望을 가지고 끊임없는 學究의인 努力과 誠實 한 奉仕로서 文化暢達에 獻身해야 할 것입니다.

## 結論 및 提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要略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어느 科學이나 學問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圖書館學 도 이에 對한 基本的인 概念을 明確히 밝혀야 하는데, 現在까지 圖書館學에 對한 基本的인 概念이 明確히 整 理되어 體系化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要略해서 말하면 圖書館學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造成의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圖書館學이 하나의 目的下에 體系化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現在까지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圖書館自體에서 이루어지는 奉仕體系만을 意味해 왔는데, 저는 于先의으로 國家의 基本法에 基礎를 둔 圖書館法과 이에 따른 圖書館政策 및 그 行政을 奉仕體系의 第2位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은 國家 또는 政府가 積極的인 文化暢達에 奉仕하겠다는 政策이 提示되지 않았으니 政府는 同法에 있어서 이 點을 時急히 改定하여, 그 誠意와 意志를 뚜렷히 밝히는 同時에 이를 誠實하게 實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나라의 大學 學部過程에 있는 圖書館學科 以外的 어느 圖書館教育機關에 있어서도 圖書館學全般에 걸친 基本概念을 周知시키는 入門科目이 于先의으로 配定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圖書館教育은 그 教育過程이 圖書館學의 體系에 따라서 均衡的으로 配定되어야 하는데, 韓國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形式上으로는 큰 缺陷은 없으나 內容이 充實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圖書館學의 歷史的인 研究와 關聯되는 科目 즉 圖書館史, 圖書의 歷史, 古來의 書誌 등은 文化史的으로 다루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圖書館學分野에 있어서 學生들을 위한 教材를 速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圖書館學分野에 있어서 創意的인 研究實績이 貧弱하니 이를 激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過去에는 圖書館教育을 받은 분들이 主로 圖書館의 資料整理에만 얽매어 있었는데, 이제는 國會 圖書館에서 印刷카드가 나오고 있으므로 資料整理에 있어서 相當한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利用者에 대한 直接的인 奉仕에 注力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우리 나라의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에는 圖書館教育이 어느程度 必要하고 圖書館學分野에서도 教育學이 어느程度 必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先進外國에서는 圖書館과 圖書館奉仕業務가 發展하여 圖書館人的 數的인 不足과 能力的 問題까지 解決策을 求하고자 國際會議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圖書館奉仕도 迅速히 發展하여 이러한 境地에 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23面에서 繼續)

그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 나라 장농이 미국의 상류 계급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장농은 미국의 부자들의 상징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안국동 골동품상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서울에서는 이미 바닥이 나서 업자들이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장농을 사가지고 그것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는 장농이 없어지고 미국에 가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런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은 서양식 캐비닛이나 호마이카 장을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 장농을 좋아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것은 그 집에 있는 장농은 응접실에 거꾸로 놓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거꾸로 놓였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인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지 잠시 망서리다가 모른체 했다. 그들은 장농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다 좋다고 느껴면 그만이지 아니겠는가.

## 本協會 出版物의 代金

### 納付를 苦待합니다

本協會에서 發行한 「韓國X進分類法」「韓國目錄規則」「學校圖書館의 施設」「公共圖書館의 施設」「圖書館用語集」「圖書館實務便覽」「選定圖書目錄」등을 引受하시고 아직도 冊代를 未納하신 분은 7月 10日까지 期必 完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周知하실줄 믿습니다만 今年內에 이들 冊代金으로써 完遂해야 할 餘他事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財政事情이 어려우시더라도 圖書館事業發展에 이바지 하시는 뜻에서 上記 期間內에 꼭 納入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 드립니다.

事 務 局